

1940·50년대 광공업 생산통계의 추계와 분석*

박 기 주** · 류 상 윤***

논문초록

1940/1941년 이후부터 해방 후 국민소득 추계를 위해 생산통계가 정비된 1953년 이전까지는 사실상 통계공백기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1940·50년대의 광공업 생산통계를 품목별로 추계하여 집계한 후 그것을 이전 및 이후의 계열과 연결함으로써 장기통계를 작성하였다. 해방 전에 광업 생산은 등락이 있지만 증가하다가 1940년대에 정체하였으며 공업 생산은 1941년에 피크에 이른 후 감소하였다. 해방과 함께 광업과 공업 생산 모두 급감하였으나 1949년까지 회복하다가 한국전쟁으로 인해 급감하였다. 이후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여 광업은 1959년, 공업은 1956년에 해방 전의 최고 생산 수준을 회복하였다. 공업 생산에서 음식료품·연초 공업과 섬유·의복·가죽·신발류 공업의 비중이 전체의 7할을 차지하다가 1940년 이후 차츰 하락하여 해방 후에는 6할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후자의 비중이 점차 높아졌다. 광업에서는 식민지기에 금광산 개발과 관련하여 금속광물의 비중이 8할 정도였으나 해방 후에는 석탄광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져 5할 대가 되었다.

핵심 주제어: 광공업 생산통계, 장기 시계열, 광공업 구성, 환산율, 해방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N5, N6, E2

투고 일자: 2010. 7. 9. 심사 및 수정 일자: 2010. 8. 1. 게재 확정 일자: 2010. 9. 3.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다(NRF-2010-32A-B00035). 익명의 심사자 세 분의 유익하고 중요한 지적이 논문의 수정에 큰 도움이 되었기에 감사드린다.

** 제1저자,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전임강사, e-mail: kjpark@sungshin.ac.kr

*** 제2저자, 東京大學大學院 經濟學研究科 客員研究員, e-mail: syryu@e.u-tokyo.ac.jp

I. 머리말

최근 한국 경제사 연구자들은 한국 경제의 장기적 변화 추이를 설명하기 위한 장기 경제통계의 구축에 노력하여 조선후기 및 식민지기에 관해서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보여주었으며, 나아가 해방 이후 최근까지의 통계와 연결을 시도하고 있다.¹⁾ 본 논문의 목적은 장기 경제통계 중 광공업 장기 생산통계를 작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식민지기와 1960년 이래의 30년 동안 광공업 부문의 성장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경험하였다. 광공업 생산통계를 구축하는 것은 이들 각 시기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광공업 성장의 장기 추이와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근대적 성장경로와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통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식민지 이전의 시기를 제외하고 보면, 기존 연구의 추계가 있는 1910~40년과 한국은행이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있는 1970년 이후의 광공업 생산추이는 쉽게 알 수 있지만, 그 사이의 기간은 그렇지 못하다. 다만 이 기간에 대한 집계된 통계들이 일부 존재한다. 예컨대 일본 大藏省管理局 편(1947)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歴史的調査』은 해방 전인 1940년대 전반의 공업 업종별 생산액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해방 후 한국은행(의 전신인 조선은행)은 국민소득 추계를 시도하였으며 최초의 공식적인 국민소득 통계서인 『한국의 국민소득 1953~58』 이후 국민소득 통계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였는데, 그 결과들이 단편적으로 또는 통계서로 남아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가 1940년대 전반의 공업 생산통계로 이용하고 있는 대장성관리국 자료는 후술하듯이 비판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태이며, 해방 후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추계 자료는 시산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거나 누차 수정이 필요할 정도로 불완전한 것이었다. 또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집계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집계된 통계로는 통계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집계된 통계 대신 새로 장

1) 식민지기의 장기통계 관한 선구적인 연구는 溝口敏行(1975)과 Suh(1978)이다. 최근에는 보다 긴 장기 경제통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대표적으로 이영훈 편(2004), 김낙년 편(2006), 낙성대경제연구소(2009), 김낙년·박기주(2007), 박기주·김낙년(2009), 김낙년(2009) 등을 들 수 있다. 일본에서는 原康宏(2007)와 李鎮勉·權赫旭(2006)의 연구가 있다.

기 생산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생산통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업 및 광업의 생산통계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은 1940/1941년까지와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서에 생산통계가 제시된 1953년부터이며, 그 사이 기간은 사실상 ‘통계공백기’라 할 수 있다.

물론 통계공백기라 해도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지는 않으며 다만 통계가 여러 자료에 산재되어 있고 통계가 단편적이거나 자료들 간에 서로 달라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본 논문은 여러 자료에 실린 광공업 품목별 생산통계를 상호 비교하여 가장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얻고 거기에 추계를 더하여 집계한 후, 그것을 업종별로 이전 및 이후의 계열과 연결함으로써 장기통계를 작성하고자 한다. 품목별 생산통계를 작성하는 것은 집계된 통계로는 불가능한 재분류와 분석을 위해서이다. 또한 본 논문은 대상 시기를 1940/41년부터 1960년까지로 하였는데 그것은 한국은행의 1953~58년 추계가 제Ⅲ장에서 서술하듯이 불완전한 면이 있어 새로운 추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940·50년대는 전시체제로 인한 통제, 해방 후의 분단과 한국전쟁 등으로 인해 통계가 발표되지 않았거나 정비되지 못했던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관한 연구는²⁾ 주로 정책에 관한 것이거나 대개 단편적인 통계에 의존하는 것에 그치고 경제지표를 전후의 시기와 비교해서 파악하지는 못했다. 1940·50년대의 광공업 생산통계를 정비함으로써, 1940년대 상반기의 전시경제체제가 식민지의 경제구조에 미친 영향, 해방 후 광공업 생산의 회복속도와 과정,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생산위축의 정도, 원조의 효과, 1950년대의 수입대체공업화의 성과 등 관심의 초점이 되는 문제들을 이해하는 토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하 제Ⅱ장에서 1940·50년대의 품목별 광공업 생산통계를 정리·추계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와 추계과정을 설명한다. 1940·50년대에 광공업 생산통계 자료는 작성 주체가 다양하여 제시하고 있는 수치도 상이하며 심지어 동일 기관이 발행한 통계서 간에도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집, 선별, 정리하여 품목별 생산통계를 만든다. 제Ⅲ장에서는 1940·50년대의 광공업 생산액에 관한 기존의 추계를 본 논문의 추계결과와 비교 검토하며 본 논문의 추계에 기초

2) 1940년대 전반기에 관해서는 堀和生(1994, 1995, 2001), 김인호(1998), 허수열(2005) 등의 연구가 있으며, 1950년대와 관해서는 김대환(1981), 김양화(1995, 1996), 이상철(2001), 이대근(2002) 등의 연구가 있다.

하여 약간의 분석을 한다. 제Ⅳ장에서는 맺음말을 대신하여 추계결과를 간단히 요약하고 추계에 기초한 연구의 전망을 제시한다.

Ⅱ. 자료와 광공업 생산액 추계

1. 이용 자료

본 논문이 광공업통계 작성을 위해 이용한 기본 자료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1940년대 전반은 전시체제가 강화된 시기로, 생산은 생산력확충이나 군수품생산을 위해 계획되고 통제되었으며, 생산통계를 비롯한 여러 통계가 작성되었어도 대부분 공란되지 않았다. 본 논문이 광공업 생산통계 자료로 이용한 것은 [1]과 같은 내부 비밀자료이다.³⁾ 이 자료는 일본 기획원이 전시물자 조달을 위해 작성한 매년도 ‘생산력확충실시계획’의 실적을 일본 국민경제연구협회가 전후에 취합하여 작성한 것이다.⁴⁾ [1]의 설명에 의하면, 1944·45년에는 각 부문별 종합판이 인쇄·반포되지 않았고 자료의 일부가 소실되기도 하였다. 또한 1943년에 생산력확충 부문에 새로 포함된 품목에 대해서는 포함되기 전의 생산통계도 추가하여 실지만, 제외된 품목에 대해서는 제외된 시점 이후의 통계는 실지 않았다. 따라서 생산력확충 부문이더라도 일부 품목의 생산통계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의 통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⁵⁾ 한편 [1]의 연도는 모두 4월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이다.

조선총독부의 제국의회설명자료인 [2]에는 [1]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좀더 상세하게 분류된 일부 품목이 있다. [3]은 여러 출처로부터 수집된 1927~43(또는 45)년의 통계가 있다.⁶⁾ 이상은 생산력확충부문에 국한되어 있다. 이에 반해 해방 후

3) 즉 『물자동원계획총괄표』(1938-45)에 수록된 ‘생산력확충계획과 그 실적’이다. 1941년의 실적이 ‘1942년의 생산확충실시계획’에, 1944년의 3/4분기까지의 실적이 ‘생산력확충품목생산실적표’에 실려 있다(原朗·山崎志郎 편, 1996).

4) 국민경제연구협회는 전쟁 중 혹은 전후에 발표된 이들 수치가 정부, 통제회 등 발표기관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省에 따라 혹은 성 내에서도 생산확충국과 물자동원국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가능한 한 정부 발표 수치를 채용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5) 생산력확충부문에는 각종 광산물, 철강, 특수강, 경금속, 석유, 화학약품, 기계 및 차량선박, 전기가 포함되어 있다. 펄프처럼 중간에 생산력확충부문에서 제외되어 이후의 통계가 누락되거나 솜수알콜처럼 중간에 포함되어 이전의 생산통계가 누락된 품목도 있다.

에 이전에 공적 기관이 작성한 여러 통계를 취합한 [6]은 생산력확충부문에 속하지 않는 일부 광공업 품목의 생산통계를 수록하고 있으며 수록된 통계의 출처는 주무기관인 광공국이였다. [6]을 제외한 나머지 [4]부터 [8]까지의 자료도 생산력확충부문에 속하지 않는 일부 품목의 생산통계를 보완하는데 이용되었다.⁷⁾ 식민지기의 광업통계 기본 자료인 [9]는 1941년판이 등사본의 형태로 남아 있어, 광업에 관한 통계는 1941년까지 일관되게 확보할 수 있다.

해방 후 통계 작성에 이용한 것은 각 기관이 발간한 통계서이다. 먼저 [10]~[15]의 한국은행 경제연감과 통계연보 및 조사월보, [16]~[17]의 내무부통계국(또는 경제기획원)의 대한민국통계연감류는 비교적 긴 계열의 품목별 생산량 통계를 제공한다. 특히 [10]과 [11]의 자료는 식민지기를 포함하는 통계를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정부기관에 의한 공식통계로 확인된다.

한국은행과 내무부통계국의 통계서는 수록된 품목의 수가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위 두 자료군의 통계 출처는 대부분 상공부인데, [18]~[21]의 상공부 발간 통계서는 좀 더 많은 품목에 대해, 그리고 좀 더 앞으로 소급되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 밖에 한국은행 발간의 [22], 한국산업은행 발간의 [23]~[24]에서 추가적인 통계를 구할 수 있다. 최초의 체계적인 국민소득 추계에 활용된 품목별 생산통계가 수록되어 있는 [25]에는 다른 자료에 없는 품목이 일부 있어 이용하였다.

같은 연도에 대해 상이한 수치를 보이는 자료들을 어떻게 취사선택하여 시계열통계를 작성할 것인가? 또한 수치가 없는 연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며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이하의 추계작업에서는 자료의 성격과 상태를 고려하여, 해방 전후의 통계가 이어지는 광업, 전시 특수상황과 맞물려 특정 부문의 자료가 비교적 자세히 남아있는 1940년대 전반기의 공업, 통계조사기관이 통일되지 않아 여러 통계서에 의존해야 하는 해방 후의 공업으로 구분하였다.

6) [3]의 해설에 의하면, 수록된 통계는 生擴실적표, 경금속통제회, 본방광업의 추세, 석유통계 연보, 비료제조업조합, 인건협회, 양회공업회, 철강통계연보, 통산성 조사 등으로부터 수집되었다.

7) 예컨대 [8]로부터 들깨기름,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생산량을 추계하였다.

〈표 1〉 광공업 생산통계 추계에 이용한 자료

자료번호	작성자(간행연도)	자료명
[1]	經濟安定本部産業局 (1951)	物資動員計劃總括表
[2]	朝鮮總督府 (1944)	帝國議會說明資料 (제84회, 86회)
[3]	國民經濟研究協會 (1954)	基本國力動態總攬
[4]	朝鮮總督府 (1943)	産業生産額等推調書
[5]	南朝鮮過渡政府庶務處調查研究署 (1947)	朝鮮要覽 장간호
[6]	朝鮮商工會議所 (1949)	朝鮮經濟統計要覽
[7]	友邦協會	朝鮮酒造業界40年の歩み
[8]	南朝鮮過渡政府	朝鮮統計年鑑 1943
[9]	朝鮮總督府殖産局	朝鮮鑛業の趨勢
[10]	朝鮮銀行 (1948)	朝鮮經濟年報
[11]	朝鮮銀行 (1949)	經濟年鑑
[12]	韓國銀行 (1955~59)	經濟年鑑
[13]	韓國銀行 (1960~)	經濟統計年報
[14]	韓國銀行 (1951. 7)	調査月報
[15]	韓國銀行 (1952. 2)	調査月報
[16]	內務部統計局 (1952~54, 57~60)	大韓民國統計年鑑
[17]	經濟企劃院 (1961~)	韓國統計年鑑
[18]	商工部 (1957)	商工概況
[19]	商工部 (1959)	商工行政概觀
[20]	商工部 (1959. 1~3)	統計月報
[21]	商工部 (1961. 1~2)	商工月報
[22]	韓國銀行調查部 (1954)	産業綜覽 제1집
[23]	韓國産業銀行 (1955)	韓國産業經濟十年史
[24]	韓國産業銀行 (1962)	韓國의 産業-업종별 실태분석-
[25]	韓國銀行調查部 (1959)	韓國의 國民所得 4286-4291 부록

2. 1941~60년 광업 생산통계

광업은 품목수가 많지 않지만 공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료들 간에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동일 계통의 자료인 [1]~[3]에는 생산력확충산업에 속하는 일부 품목의 생산통계가 수록되어 있다. 해방 후에 작성된 [11]은 식민지기 광업통계 기본 자료인 [9]와 같은 계통의 자료로 생각되며,⁸⁾ 거의 모든 광물에 대해 1938

8) [11]과 [9]는 비교 가능한 1938~41년의 통계가 대부분 일치한다.

년부터 해방 후까지 이어지는 생산통계를 수록하고 있다. [1]~[3]과 [11] 사이에 수치상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본 논문은 [11]로서 해방 전후의 광업생산 통계를 작성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다른 자료로 보완하였다. 따라서 1910년 이래로 대부분의 품목에서 생산통계는 시계열의 연속성이 보장된다.

본 추계의 작업과정에 대한 이해도 겸하여, [11]을 광업 생산통계 자료로 사용한 이유를 좀 더 설명하자. 생산력확충산업에 속한 품목이라면 당연히 생산통계가 정확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각 자료에서 비철금속 생산통계를 모은 <표 2>를 보면, 연과 아연 생산량에서 [2]의 수치는 1940·41년에서 [1]의 제련지 수치와 일치하지만 1942·43년에는 광산지 수치와 일치하며, [9], [11]과는 1940년의 아연에서만 일치한다. 銅 생산량에서는 [1]의 제련지 수치가 1940·41년에서 [2]와 일치하고 [9], [11]과는 1940년에서만 일치한다. [1]의 광산지와 제련지 수치를 비교하면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보다 항상 크거나 작은 것이 아니라 서로 엇갈려 있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하기 어렵다. 다만 [2]가 광석의 함유금속량이라고 설명되어 있으므로 1940·41년에서 [2]와 일치하는 [1]의 제련지 수치도 함유금속량으로 판단된다.

[1]~[3]은 제시하는 품목이 적을 뿐 아니라 이처럼 동일 계통의 자료임에도 [1]과 [2]간에 상호 모순되는 수치가 있고 일관성도 없어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1]을 주로 사용하여 1941~44년의 생산통계 시계열을 작성하였다. [11]은 해방 후의 통계와도 성격상 연속성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식민지기 광업자료인 [9]와도 비교 가능한 연도(1941년 이전)에서 품목별 통계가 대부분 일치한다.

그런데 [9]에는 독립제련소 생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1911~40년의 생산추계(박기주 2006)는 그것을 분리하여 공업에 포함시키고 광산 부속이 아닌 독립제련소의 원료광석과 광산내 제련품을 광업 생산에 포함시켰다. [11]의 생산통계도 [9]와 마찬가지로 제련소 생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야 기존 연구의 시계열과 일관되게 연결할 수 있다. 마침 [2]에 1938~42년의 독립제련소 생산통계(<표 2>의 비교난에 독립제련소로 표시된 행)가 있으므로 그것과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원료광석과 광산 제련품을 추정하였다.

1941·42년까지 [2]의 독립제련소 생산과 [11]을 비교하면 동을 제외한 금·은·연·아연 생산 수치에서 후자가 전자보다 크다. 금의 약 반은 광산에서 직접 제련되었던 반면, 은·동·연·아연은 대부분 독립제련소의 금 제련과정에서 부산

물로 생산되었다. 반면, 銅의 경우에는 1941·42년에 〔2〕의 수치가 〔11〕보다 더 크다. 독립제련소의 금 제련에는 동광석도 원료로 대량 투입되는데 동광석의 대부분은 수이입되었다(조선은행 1948, p.I-94). 〔11〕의 생산수치가 〔2〕의 제련소 생산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은 국내 광석에서 제련한 것만을 계산한 때문으로 보인다.

〈표 2〉 해방 전 비철금속 생산량

	자료	1939년	1940년	1941년	1942년	1943년	1944년	비고
금 kg	〔3〕	29,192	25,188	25,584	22,755	14,458	7,769	금지금
	〔1〕	31,603	26,257	23,040	21,305			광산지
	〔1〕	29,614	25,082	22,328	21,638			제련지
	〔2〕	11,536	12,409	12,002	12,215	4,274*	478*	독립제련소, 1943·44년은 〔11〕의 80%
	〔9〕	25,760	22,060	20,633				
	〔11〕	25,759	22,060	21,487	15,241	5,342	598	含有金屬量, 제련소 생산 포함
은 kg	〔2〕	93,643	106,381	98,524	96,077	79,200*	72,153*	독립제련소, 1943·44년은 〔11〕의 90%
	〔9〕	115,681	113,886	109,808				
	〔11〕		112,885	109,808	106,173	88,000	80,170	含有金屬量, 제련소 생산 포함
동 t	〔1〕	2,900	3,782	3,897	5,238	4,174		광산지
	〔1〕	11,862	12,944	9,858	2,238	1,726	717	제련지, 1940년 〔11〕과 일치
	〔2〕		12,944	9,838	3,890	5,382		含有金屬量
	〔2〕	10,539	13,575	10,625	7,986	4,554*	5,193*	독립제련소, 1943·44년은 〔11〕의 100%
	〔9〕	10,539	12,944	10,624				
	〔11〕	10,539	12,944	3,499	4,759	4,554	5,193	含有金屬量, 1939·40년 〔9〕와 일치
연 t	〔1〕	1,937	7,700	7,819	9,520	21,681	16,381	광산지
	〔1〕	9,178	13,045	14,220	2,475	4,581	5,683	제련지, 1940-41년 〔11〕과 일치
	〔2〕		13,045	14,250	9,521	21,682		含有金屬量
	〔2〕	7,957	13,806	13,452	10,086	12,925*	14,840*	독립제련소, 1943·44년은 〔11〕의 70%
	〔9〕	7,957	13,045	14,140				
	〔11〕	7,957	13,045	14,140	14,185	18,464	21,200	제련소 생산 포함
아연 t	〔1〕	7,849	6,300	5,996	8,610	18,444	15,581	광산지
	〔1〕	20	2,451	6,650	7,722	7,453	5,292	제련지
	〔2〕		2,451	6,650	8,610	18,581		含有金屬量
	〔2〕		1,755	5,989	7,697	10,251*	16,009*	독립제련소, 1943·44년은 〔11〕의 80%
	〔9〕		1,763	5,989				
	〔11〕		1,769	5,989	9,754	12,814	20,011	제련소 생산 포함

주: *는 필자의 추정치이며, 추정방식은 비고란에 설명되어 있다.

여기서는 동을 제외한 모든 금속의 광산 생산량은 [11]에서 제련소 생산을 뺀 것으로 한다. 銅은 제련소 생산이 [11]의 수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광산의 생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1943·44년의 금광산 정리에 의해 제련소에서 금·은의 제련은 거의 중단 상태였으나,⁹⁾ 생산력확충계획에 포함된 연·아연은 생산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촉진되었다(조선은행 1949, p.I-38). 반면 똑같이 생산력확충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동광석 수입의 불가능으로 동 생산량은 오히려 줄었다. 1943·44년 금·은·연·아연의 광산 생산량은 1942년의 생산에서 독립제련소가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제외한 나머지를 광산 생산으로 하였으며, 동은 [11]의 생산량 모두를 독립제련소의 생산으로 하고 광산의 생산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은·동, 연, 아연 생산액의 73.6%를 독립제련소에 투입된 원료광석(금은동광석, 연광석, 아연광석) 생산액으로 보았다.¹⁰⁾

해방 후에도 해방 전의 생산품목이 대부분 이어지지만, 자료들 간에 수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느 자료의 통계가 정확한지를 판단할 충분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 다른 연도의 자료와 시계열적으로 이어지는 자료를 선택하며, 누년통계표에서 마지막 연도는 수치가 부정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뒤에 이어지는 다른 자료의 수치를 사용하였다.¹¹⁾ 여러 자료의 수치를 검토한 후, 통계 작성에는 주로 1946-54년의 통계가 수록된 [23]과 1950-60년의 통계가 수록된 [17]을 이용하였다. 이외의 자료에서 소금을 비롯한 일부 품목의 생산통계를 추가하되,¹²⁾ 통계 누락이 있는 연도는 해당 품목의 생산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따로 보완하지 않았다. 또한 1950년은 전쟁으로 인한 생산통계의 누락이 있지만 실제로 생산이 없거나 미미했다고 간주하여 보완하지 않았다.

이상에서 해방 전과 해방 후의 생산량 시계열을 작성한 후 각각 1941년과 1955년

9) 예컨대 장항제련소는 1943년 금산정비령 이후 금 제련은 중단하고 주로 연 및 동 제련을 하였다(한국은행조사부 1954, p.285).

10) 73.6%는 박기주(2006)가 독립제련소의 투입 원료광석을 계산할 때 적용한 것이다.

11) 예컨대 간행연도가 1948년인 [10]과 1949년인 [11]에 실린 1947년의 통계수치가 상이하면 [10]의 통계를 배제하였다. 이상의 원칙에 따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선택하였다.

12)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금에 대해서는 [24]의 천일염 통계를 이용하였다. 이 외에 한국산업은행, 한국은행, 내무부통계국(또는 경제기획원), 상공부 등이 발간한 여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계도 추가하였다.

기준의 불변가격 시계열을 작성하고,¹³⁾ 불변가격 시계열에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와 총 부가가치를 계산하였다. 해방 전은 김낙년 편(2006)이 1910~41년의 광업 부가가치를 추계할 때 사용한 부가가치율, 해방 후는 1955년의 부가가치율 곱하여 중분류별 부가가치와 이를 합한 총 부가가치 시계열을 얻었다.¹⁴⁾ 이상의 불변가격 생산액과 부가가치의 해방 전 계열은 남북한을 합한 것이기 때문에 해방 후의 통계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생산만을 분리해야 한다. 1911~40년에 대해서는 김낙년(2008)을 이용하고, 1941~44년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이전 5년간의 남한 생산비중 변화 추이를 연장하여 계산하였다.¹⁵⁾

한편 해방 전과 후의 광업 중분류에는 차이가 있다. 해방 전에는 비철금속 광석과 제련품의 생산량 통계가 각각 제시되어 있지만, 해방 후의 자료에는 일정한 금속함유량 기준으로 환산한 생산량 통계가 제시되어 있다.¹⁶⁾ 또 해방 후 통계에서는 분리되어 있는 염(천일염)과 토사석이 해방 전 통계에서는 비금속광물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1941~60년의 추계 계열에서는 석탄, 금속광업, 비철금속, 비금속광업, 염·토사석의 5분류로 구분하고 해방 이전 및 이후의 계열에 맞추어 연결하였다.

3. 1940~44년 공업 생산통계

〈표 1〉의 자료 중에는 생산통계가 1940년 이전으로 소급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1940~44년의 통계를 작성하고 그것을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기초하여 작성한 1911~40년 계열과 1940년에서 접속하기로 한다. 1940년대 전반의 생산통계는 대개 공장생산 통계이지만 통계연보의 생산통계는 가내공업 생산도 포함하고 있어 양자의 성격이 상이할 뿐 아니라, 품목의 세분화된 정도가 다르고 수량 단위가 다른 경우도 많다.¹⁷⁾ 따라서 광업처럼 품목별 통계를 직접 연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

13) 1941년 단가는 [9], 1955년 단가는 [25]에서 구했다.

14) 1940년대 전반기의 부가가치율은 석탄광업 67.2%, 금속광업 72.2%, 비금속광업 71.5%, 비철금속 45.4%이며, 염·토사석은 비금속광업과 같은 71.5%를 적용하였다. 해방 후는 순서대로 각각 59.4%, 65.0%, 53.5%, 38.5%, 59.7%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였다.

15) 따라서 남한의 생산비중은 점점 작아져 1941년에 27.3%였으나 1944년에는 24.0%로 감소하였다.

16) [25]에 의하면 광종별로 기준함유율이 다른데, 금, 사금, 은은 100%, 철광, 연광, 아연광은 50%, 동광은 7% 등이다.

능하다.

〈표 3〉 해방 전 철강제품 생산량(톤)

	자료번호	1938년	1939년	1940년	1941년	1942년	1943년	1944년
선철	[3]	294, 523	296, 058	246, 083	298, 466	318, 674	517, 892*	543, 663*
普通鉄	[1]	293, 314	311, 000	233, 943	278, 432	367, 647	514, 469	522, 466
普通鉄	[6]		287, 322					628, 134
선철	[10]	295, 373		233, 943		365, 467		520, 251
강철	[3]	106, 246	111, 677	108, 990	156, 990	179, 152	127, 929*	128, 301*
강철	[10]	91, 728		76, 318		110, 170		72, 025
강철	[11]				133, 032	172, 227	139, 172	111, 612
보통강강괴	[2]		93, 602	93, 664	116, 545	127, 841	101, 534	
보통강강괴	[6]		93, 131					99, 883
보통강강재	[1]	87, 847	75, 262	76, 318	91, 311	104, 360	95, 081	68, 049
보통강강재	[3]	91, 489	76, 918	75, 640	87, 687	113, 922	95, 081	67, 637
보통강강재	[6]		73, 160					72, 025
鍛鋼	[1]		4, 001	3, 616	4, 326	3, 099	2, 815	2, 120
鑄鋼	[1]		7, 432	10, 877	10, 794	12, 412	14, 378	14, 548
특수강	[3]	2, 409	6, 202	10, 132	14, 100	17, 271	20, 063	20, 067
특수강	[1]	2, 419	6, 202	10, 132	14, 100	17, 271	20, 067	20, 594
특수강鑄鋼	[6]		2, 904					2, 993
특수강鋼材	[10]/[6]		2, 639	10, 132		17, 271		20, 249
ferro-alloy	[3]	486	1, 645	1, 576	1, 594	2, 596	6, 171	7, 605
ferro-alloy	[1]		1, 454	1, 536	2, 291	2, 596	6, 168	
합금철	[10]/[6]	1, 260	1, 305	1, 536		1, 519		9, 315
製鋼原鐵	[2]/[6]		13, 744	36, 975	52, 786	58, 513	52, 992	51, 158
제강원철	[1]					74, 602	72, 662	

주: *는 자료상의 추정치. 볼드체는 추계에 이용된 데이터.

통계 작성에는 ‘앞 시기의 통계와도 비교적 정합적이며 긴 시계열을 제시하는’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일부 품목에서는 자료의 선택이 쉽지 않았다. 예컨대 강괴, 강재,鍛·鑄鋼, 선철 등은 생산력확충계획에서 특별히 강조되었던 것이어서 통계수

17) 예컨대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는 방직공업 제품은 면직물이라도 종류별로 구분되어 있고 광폭, 소폭별로 수량단위도 다르게 되어 있는데, 본 논문이 이용하는 자료에는 면직물 하나로 통일되어 있을 뿐이다. 한편 자료를 보면, 석유 생산량이 1940년까지는 무게 단위, 이후는 부피 단위로 나와 있다.

치가 자료 간에 어느 정도 일치할 것을 기대했지만 <표 3>에서 보듯이 상이하였다. [3]의 선철·강철 통계는 1911~40년 계열의 수치와 이어지고 특수강·합금강(ferro-alloy) 통계는 모두 1944년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들 4품목에 대해서는 [3]의 수치를 선택하였다.¹⁸⁾ 단, 1943·44년의 선철·강철의 수치는 추정치이므로 그에 가장 근사한 수치를 보이는 [1]의 수치로 대체하였다. 강재와 단강·주강의 생산량을 동시에 파악하고 있는 것은 [1] 뿐이므로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1]의 수치를 택하였다. 제강원철 생산통계는 [2]에서 1943년까지를 취하고 [6]으로부터 1944년의 수치를 추가하였다.

이 외에 시멘트, 유안, 인조석유, 알루미늄 등 중요한 품목의 생산량 수치가 자료들 간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자료 [1]의 수치를 선택하였다. 또한 생산력확충계획 실적통계에서 1944년 4/4분기의 결락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25%를 부풀려 보완하였다. 1944년 생산량 수치가 결락된 경우나 중간 중간에 수치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런 경우에 생산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슷한 다른 재화의 생산량, 원료소비량 등과 같은 다른 정보를 이용하거나 선형 補間하거나 이전 생산 증감 추세로 補外하였다.¹⁹⁾ 금속제품 생산에는 독립제련소가 생산한 금·은·동·연·아연이 포함된다. 독립제련소는 은·동·연·아연의 대부분과 금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였다. 1943·44년에는 금광산 정리에 의해 독립제련소에 의한 금 생산은 거의 중단되었지만 생산력확충계획산업인 동·연·아연의 생산은 지속되었을 것이다. 독립제련소의 생산통계는 앞의 <표 2>에서 정리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정리된 품목은 92개이며, 가중치를 알 수 있는 77개 품목의 가중치 합은 54.5%이었다.²⁰⁾ 품목별 가중치는 『조선총독부통계연보』의 1940년 생산액을

18) [3]의 선철은 보통선과 低磷銑의 합계로 생각된다.

19) 비슷한 다른 재화의 생산량 추이를 이용한 것은 1944년의 청주, 소주, 탁주, 1943·44년의 건·인건교직물과 마직물 등의 생산통계이며, 1942·43년의 가마니, 새끼, 돛자리 등의 생산은 원료생산 정보를 이용하여 추계하였으며, 타올, 장갑, 대두유, 낙화생유, 면실유와 같은 각종 식물성유지 등의 생산량은 선형 보간으로 보완하였으며, 제지펄프와 화차 등은 이전 생산 증감 추세를 연장하여 보외 추계하였다.

20) 가중치를 알 수 없는 품목은 마그네슘, 알루미늄과 같은 경금속과 항공휘발유, 인조석유, 초산 등 화학공업 제품이다. 대체로 1930년대 말 또는 1940년대 초부터 생산이 시작되어, 대체로 증가추세이지만, 공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殖銀調査月報』 78호, 1944. 11·12, pp. 30-31).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며,²¹⁾ 따라서 54.5%라는 수치는 본 추계에 포함된 품목이 1940년 공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그런데 1940년도 공산액에서 단가를 알 수 있는 품목의 생산비중이 62%이며 그 정도의 품목을 갖고 기준 연도 대비 1940년의 생산지수를 계산하였다는 것에 비추어볼 때, 54.5%라는 수치는 공업생산의 추이를 파악하기에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많지 않은 품목으로 반 이상의 커버리지를 보인 것은 중요 품목이 대체로 망라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공업 업종별로 보면 커버리지가 달라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다.²²⁾

이들 각 품목의 1940년 대비 생산증가율에 가중치를 곱하여 공업 업종별로 합산하면 업종별 수량지수가 된다. 또한 이를 1940년 공업 업종별 생산 비중으로 가중 합산하면 공업 수량지수가 된다. 다만 이 지수는 라스파이레스 수량지수이므로²³⁾ 실제보다 생산을 과대평가하는 편향이 있다. 부가가치는 1911~40년 계열의 1940년 업종별 생산액과 부가가치로부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계산하여²⁴⁾ 그것을 1941~44년 추계 계열에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한편 해방 후의 남한의 생산통계와 연결하기 위해 식민지기 공업 생산액과 부가가치를 남북으로 분할해야 한다. 1911~40년에 대해서는 김낙년(2008)이 작성한 비율을 사용하며 1941~44년에 대해서는 남북의 공업 생산구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업종별로 남한 생산비율의 추세를 1944년까지 연장한 것으로 남한의 생산비율을 삼는다. 이 비율을 남북 분할에 사용하며, 총액의 남북분할은 업종별 생산을 가중 합산하여 구한다.²⁵⁾

21) 몇 개 품목, 예컨대 특수강과 합금강, 단·주강의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선철, 강철, 강판, 기타 강재, 금속 정련품 등 중일전쟁 이후 생산통계 발표가 금지된 품목에 대해 『昭和15年民營工場生産額集計』에서 1940년의 생산액을 파악하여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이 공장생산액집계에는 선철, 강괴, 강재의 생산액 합보다 훨씬 큰 금액의 금속정련품이 있는데, 경금속, 특수강, 합금강, 단·주강 등이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여 가중치를 추정하였다.

22) 공업 업종별 커버리지는 제1차 금속이 99%, 섬유·의복·가죽·신발류가 75%인 반면, 금속제품·기계류는 15%, 가구·제재·목제품은 0%이며 그 외의 공업은 35~60% 정도이다. 관련 품목이 하나도 없는 가구·제재·목제품의 수량지수의 추이는 공업 전체의 추이와 같다고 가정한다.

23)
$$\sum \frac{Q_t}{Q_0} \frac{P_0 Q_0}{\sum P_0 Q_0} = \frac{\sum Q_t P_0}{\sum Q_0 P_0} \quad P, Q \text{는 가격과 생산량, 하첨자 } 0 \text{와 } t \text{는 기준연도와 비교년도를 나타냄.}$$

24) 이 시계열의 부가가치율은 1966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계산된 것이다(김낙년 편 2006).

이상에서 작성한 1940년대 전반의 공업생산 통계는 대개 생산력확충계획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주로 공장의 생산통계라고 할 수 있다. 가내공업은 식민지 초기에 전체 공산액의 80%를 차지했으나 1930년대 말에 20% 정도에 불과하고(박기주 2006) 1940년대에는 그보다 더 줄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내공업으로 남은 것은 대부분 자가소비 목적의 간장, 된장, 탁주, 소주 등의 음식료품과 벗짚 제품과 일부 의류제품이었다. 다행히 1940년대 생산통계 추계에는 중요한 가내공산품인 가마니와 새끼(繩)가 포함되어 있으며, 간장·된장 등의 통계가 없으나 전체 추세를 파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4. 1946~60년 공업 생산액 통계

여기서는 생산통계를 알 수 있는 품목이 극히 소수에 불과한 1945년을 제외하고 1946~60년의 생산액을 추계한다. 추계의 실마리가 되는 자료는 <표 1>의 [25]이다. 해방 이후의 여러 통계서에 실린 생산통계는 단편적이며 수량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그것만으로 생산액의 추이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데 자료 [25]에는 품목별 생산통계가 망라되어 있어 국민소득 추계에 포함된 각 품목의 생산량과 단가를 알 수 있다. 1953~58년의 국민소득 추계는 뒤의 <표 5>에서 보듯이 그 후 계속 수정되었지만, 수정과정에서는 그와 같이 구체적인 자료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여타의 통계서에서 누락된 품목이나 품목별 생산비중 계산에 필요한 단가는 이 자료에 의존한다. 단, 생산량은 가능한 한 1946년까지 소급, 추적하였으며 이하에서 설명하듯이 추계 방법도 일부 개선하였다.

1946년 이후의 공업 생산통계는 자료 간에 수치가 달라서 종합적인 비교검토가 필요하다. 자료는 상공부 및 내무부통계국(또는 경제기획원) 자료([16]~[21])와 한국은행 자료([10]~[15])로 나눌 수 있다.²⁶⁾ 한국은행 자료는 상공부가 작성한 통계 외에 농림부, 각 협회 등으로부터 얻은 수치도 제공하고 있는데 일부는 상공부

25) 결과에 의하면 남한의 공업 생산비율은 1940년의 45%에서 1944년 36%로 하락하였다.

26) 1960년대까지 공업 생산통계가 여러 기관(상공부, 海務廳, 전매청, 재무부, 대한방직협회, 澱粉공업협회 등)에서 작성되었으며, 한국은행과 내무부통계국(후에 경제기획원)은 각기 그것을 수합해서 통계서에 수록하였다. 따라서 양 기관의 통계서를 상호 대조하여 누락이나 오류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통계와 다른 값을 보여주기도 한다. 위 두 그룹의 자료를 모두 입력하여 DB를 만든 후 이들이 포괄하지 못하는 연도와 품목에 대해서는 다른 자료([22]~[25] 등)를 참고하여 DB를 보완하였다. 통계 수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동떨어진 수치부터 제거해 나갔으며 수치를 확정하기 곤란할 때는 자료 [25]의 수치와 가까운 것을 택하였다.²⁷⁾ 예컨대, <표 4>에서 보듯이 면직물의 생산량은 상공부와 한국은행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치가 다른데, 자료 [25]는 상공부의 것을 선택하였다. 또한 한국은행 수치는 주식에 대한방직협회 산하분만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고 그보다 상공부의 수치가 더 크므로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더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1차 작성된 시계열은 다음과 같은 수정·보완과정을 거쳤다.

<표 4> 해방 후 면직물 생산량 통계 비교 (천 평방 야드)

자료번호	1946년	1948년	1950년	1952년	1954년	1956년
[17]			63,859	60,028	115,139	146,563
[18]	24,613	34,218	63,859	60,028	115,139	146,563
[12]		27,682	57,355	43,191	73,039	103,525
[25]					115,139	146,563

자료: <표 1> 참조.

첫째, 모든 생산품목을 1970년 개정 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분류하였다. 1950년대 당시의 산업분류는 [25]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에서 기타공업(39, KSIC 코드, 이하 동일)²⁸⁾으로 분류한 ‘인조방’을 식료품공업(31)에 포함시켰으며, 소금은 재제염만 공업에 포함되는데 [25]에 수록된 소금은 모두 천일염으로 생각되므로 화학공업(35)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25]에서 화학 및 화학제품 공업에 속해 있는 합성수지 제품을 기타공업으로 분류하였다. 물론 이들 품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조정 후에도 화학 및 화학제품 공업의 생산 추이는

27)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누년표의 마지막 연도의 통계는 부정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자료와 모순될 경우에는 그것을 버렸다. 동일한 기관의 자료 간에도 수치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다른 기관의 자료와 일치하거나 장기 계열로 제시된 것을 선택하였다. 일부 품목의 경우는 자의적인 판단도 필요하였다.

28) KSIC 공업 분류는 다음과 같다. 음식료품·연초(31), 섬유·의복·가죽·신발류(32), 가구·제재·목제품(33), 인쇄출판·紙제품(34), 화학·석탄·고무제품(35), 토석·유리제품(36), 제1차 금속(37), 금속제품·기계류(38), 기타(39)

거의 변하지 않았다.

둘째, 통계치의 분할 또는 추세연장을 통해 개별 품목의 생산통계를 보완하였다. 예컨대 수산가공품 통계가 1948년 이후는 6분류(소건품·염건품·자건품·염장품·염신품·해조류)이지만 1947년 이전은 3분류(건어·염어·기타)로 되어 있다. 1949년 이후에 대해 두 분류의 값을 비교해보면 건어는 소건품과 자건품의 합, 염어는 염건품과 염장품의 합과 같으므로 1947년 이전의 값을 1949년의 비율로 분할하였다.²⁹⁾ 그러나 3분류의 기타는 6분류의 염신품·해조류의 합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1949년을 기준으로 기타의 추세와 염신품·해조류의 추세가 같다고 보고 1947년 이전의 생산량을 소급 추계하였다. 추세연장은 관련 있는 다른 품목의 생산량이나 가격계열을 이용하여 통계를 보완할 때도 사용하였다. 예컨대 제재품의 생산량은 1955~58년의 값만 알 수 있는데, 임업의 용재(用材) 생산추이를 이용하여 전후의 값을 추계하였다. 搗精額은 1953~58년의 정부 도정만 있으므로 민간 도정을 포함하는 추계가 필요하다. 1953~60년의 경상가격 도정액(한국은행조사부 1966)을 서울 소비자물가지수(김낙년·박기주 2007: <표 1>의 경제기획원 1961)로 나누어 불변가격 도정액을 산출하고, 1946~52년의 불변가격 도정액은 불변 생산액과 미국 생산량간의 관계와 미국생산량 통계를 이용하여 연장하였다.³⁰⁾

셋째, 통계가 누락된 연도를 보완하였다. [25]에서 생산량 통계 없이 불변생산액만 있는 품목이 있다. 이중 상당수는 중분류별로 ‘일정한’ 지수를 이용하여 1955년 생산액을 연장한 것으로 파악된다.³¹⁾ 지수가 다르게 계산되는 품목의 불변생산액은 실제 조사의 결과로 보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일정한 지수로 연장한 품목에 대해서는 재추계가 필요하다.³²⁾ 또한 1955년 이외의 연도에서 통계가 누락된

29) 1948년의 값을 합계가 일치하지 않아 1949년의 비율을 적용하였다.

30) 1953~60년에 미국 생산량과 도정 불변가격 생산액은 높은 상관관계(0.95)를 보였다. 전자 대 후자의 비율(0.185)을 1946~52년 미국 생산량에 곱하여 불변가격 도정액을 계산하였다.

31) 이들 품목의 1955년의 생산액은 1955년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조사의 결과로 보이며, 이를 일정한 지수에 의해 전후 연도로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식료품공업에 적용한 지수는 1953~58년에 80.5, 82.2, 100.0, 122.3, 117.7, 141.6이다. 그런데 이 지수는 식료품공업 생산지수의 추이와는 무관하다.

32) 이는 ‘일정한’ 지수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며, 또한 1953~58년 뿐 아니라 전후의 연도를 포함한 추계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예컨대 고추장, 기타 식료품, 과자 세 품목의 불변생산액 지수를 보면 고추장과 기타식료품은 주 31)의 지수와 같지만 과자는 다르다. 따라서 이 둘을 새로 추계하고 과자의 불변생산액은 자료 그대로 이용하였다.

품목이 있다. 이는 실제로 생산되었지만 조사가 미비했던 때문으로 보인다. 생산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³³⁾ 관련 품목의 생산액 추이를 이용하여 보완하였다. 예컨대 자전거부속품 생산통계의 누락을 자전거 생산통계의 추이를 이용하여 보완하는 방식이다. 혹은 동일 업종 내에 시계열이 완전하고 비중이 큰 품목의 불변가격 생산액 추이를 이용하여 생산액 계열을 연장하였다. 예컨대 1955년 생산액만 있는 고추장은 간장·된장 생산액 합계의 추이를 이용하여 불변가격 생산액 계열을 연장하였다. 도축은 1951년 이후의 생산액만을 계산할 수 있는데, 식료품 공업 총생산액의 추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나머지 품목들의 생산액 합계와 같은 추이로 1946~50년의 생산액을 연장하였다.

넷째, 중분류별 생산액(1955년 기준 불변가격)에 [25]의 소득률(=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업종별 부가가치를 구하고 이를 합하여 1955년 기준 불변가격 공업 부가가치를 계산하였다. 그런데 일부 업종의 경우는 자료의 부족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일부 연도의 부가가치를 계산할 수 없어서 다른 업종의 부가가치나 한국은행의 다른 추계 계열을 이용하여 연장을 시도하였다. 예컨대 인쇄출판업의 경우, 1959~60년은 해당 업종의 한국은행 추계(<표 5>의 계열3)의 추이를 이용하여 연장하고 1946~52년은 본 추계의 紙類·紙類製品業의 추이를 이용하여 연장하였다.³⁴⁾

이상에서 보완한 1955년 기준 불변가격 생산액을 KSIC 중분류별로 정리하였다.³⁵⁾ 이 불변가격 생산액은 명목액을 파세 물가지수로 나눈 것과 같다.³⁶⁾ 파세 물가지수는 물가 상승을 과소평가하는 편향이 있으므로 이 불변가격 생산액 추이는 생산 증가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5. 장기 시계열의 작성

해방 전후를 관통하는 공업 생산액의 장기 계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

33) 생산을 시작한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품목(예컨대 精糖은 1953년)이나 새로 등장한 것으로 추측되는 품목은 보완하지 않았다.

34) 靴類·衣類·裝身品 공업과 家具·裝置品 공업도 같은 방법으로 앞뒤 연도의 값을 추정하였다.

35)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추계에는 공업이 20개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식민지기의 통계와 KSIC의 9분류에 따라 통합하였다.

36) $\sum P_0 Q_t = \sum P_t Q_t \div (\sum P_t Q_t / \sum P_0 Q_t)$.

요하다. 그것은 해방 전의 공업 생산액 추계와 해방 후의 추계의 기준가격 연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1911~40년 계열의 1940년 업종별 불변생산액을 1940년대 전반기 업종별 물량지수를 이용하여 1944년까지 연장하고 공업 전체의 불변생산액 시계열도 동일한 방식으로 연장한다. 이리하여 1935년 가격의 1911~44년 불변생산액 시계열이 만들어진다.

다음으로, 1935년과 1955년으로 기준가격 연도가 다른 두 시계열을 접속 가능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김낙년·박기주(2007)는 해방 전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고 GDP 연결에 이용한 바 있지만 그것은 비공산품과 무역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업 생산통계를 연결하기 위한 디플레이터로는 부적합하다. 한국은행이 작성한 서울 도매물가지수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에 본 논문은 개별 품목별로 1935년과 1955년의 단가를 직접 비교하여 환산율을 만들었다. 해방을 전후한 약 20년 동안에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었고 남북 분단에 의한 생산 구성의 차이도 있었기 때문에, 계산에는 다음과 같은 피셔 산식을 이용하였다. P , Q 는 각각 단가와 생산량, 하첨자는 연도를 나타낸다.

$$\text{환산율} = \left\{ (\sum P_{55} Q_{35} / \sum P_{35} Q_{35}) \cdot (\sum P_{55} Q_{55} / \sum P_{35} Q_{55}) \right\}^{1/2}$$

이 환산율 계산에 이용된 것은 50개 품목이며, 이들 품목의 가중치, 즉 공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합계는 1935년이 50.6%이고 1955년이 38.4%이다. 커버리지가 그리 높지는 않지만, 두 기준연도의 가격 차이를 파악하기에 부족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들 품목의 단가로부터 계산한 환산율은 57,589이다. 이는 두 기준연도 간의 공산품의 가격상승 배율에 해당하며, 김낙년·박기주(2007)의 서울 소매물가지수보다 낮고 한국은행 도매 물가지수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³⁷⁾

총액의 환산율 뿐 아니라 공업의 9분류와 광업의 4분류별로도 환산율을 작성하여 적용함으로써 각 시계열을 중분류별로도 연결하였다.³⁸⁾ 이로써 본 논문은 1935년 가격 기준의 1911~44년과 1955년 가격 기준의 1946~60년 시계열을 KSIC 업종별

37) 1936년을 1로 할 때, 김낙년·박기주(2007)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63,351, 한국은행 도매물가지수는 55,600, 소매물가지수는 69,766이다.

38) 단, 금속제품·기계기구(38)는 전구 한 품목의 단가만 비교가능한데 그 가중치가 매우 낮고 계산결과가 정상치를 훨씬 벗어나기 때문에 공업 전체의 환산율을 적용하였다.

및 총액별로 연결함으로써 광공업 생산통계 장기 시계열을 작성하였다. 그 결과를 표로 제시하기에는 지면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부표 1>에 광업과 공업의 총 생산액과 총 부가가치 장기 계열만 제시하고 각 업종별 장기 계열은 별도의 홈페이지(<http://www.naksung.re.kr/papers/2010-4.pdf>)에 제시하였다. 유의할 것은 1911~44년 계열은 중분류별로 실질화한 금액의 합이 총액을 실질화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1911~40년 계열이 가법성을 유지할 수 없는 피셔지수로 실질화되었기 때문이다.

Ⅲ. 추계 결과의 비교와 분석

1. 기존 추계와의 비교

일본 대장성관리국 편(1947)에는 1936, 1937, 1939, 1941, 1943년 조선의 공업 생산액이 제시되어 있다. 해방 후 발간된 <표 1>의 [6]에도 동일한 성격의 1942년도 공장 생산액이 제시되어 있다. 양 자료에 나와 있는 공업 생산액을 통칭하여 『역사적 조사』의 추계라 하자. 『역사적 조사』의 1930년대 후반 3개년의 공업 생산액은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있는 공장 생산액이며 1941·42년 통계도 그 출처가 鑛工局으로 이전 통계와 마찬가지로 공장 생산액이지만, 1943년은 조선은행의 추정액이다. 『역사적 조사』에 실린 불변생산액은 이 명목생산액을 조선은행의 1936년 기준의 도매물가지수로 환산한 것에 불과하다. 堀和生(1995) 역시 이 명목생산액을 1934~36년 기준의 물가지수로 재계산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³⁹⁾

<그림 1>은 1936~44년의 공업생산 추이에 대해 본 추계 결과를 堀和生の 계산 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堀和生은 공업생산의 피크가 1942년이었다고 하지만, 본 추계에 의하면 식민지기에 공업 실질생산액은 1940년을 100으로 할 때 1936년에 57.3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41년에 105.1로 피크에 도달하며 이후 감소하여 1944년에 84.8이었다. 남한만을 보면, 역시 1940년을 100으로 하여, 1936년이 65.6이고 1941년이 100.4로 피크이며 1944년은 67.1로서 거의 1936년의 상태로 돌아갔다. 전시 하에 경공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경공업의 비중이 컸던 남한에서

39) 그 차이는 모든 공업 업종에서 『역사적 조사』의 실질생산액이 堀和生(1995)의 실질생산액의 1.074배라는 것이다.

공업 위축이 보다 현저했음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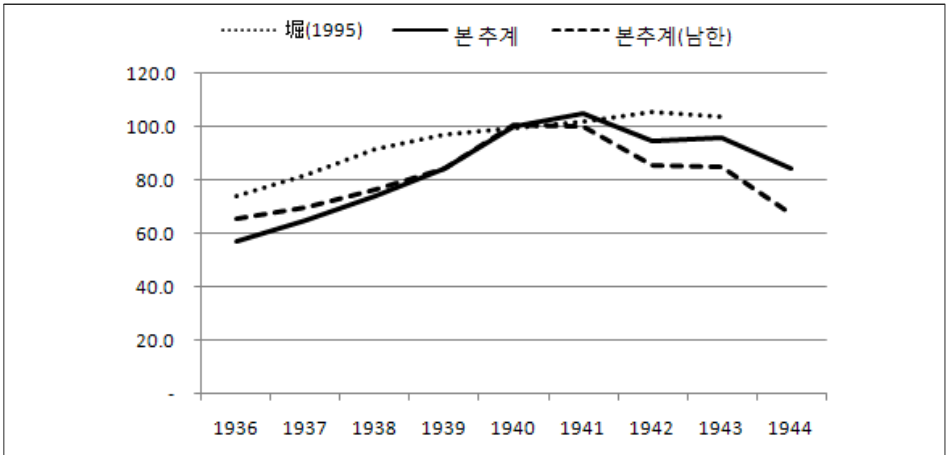
당시 공장 생산액이 공산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장 생산액으로 공산액의 추이를 보는 것은 그다지 문제가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 조사』나 堀和生の 실질생산액 통계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1943년 생산액이 실제의 생산액이 아니라 조선은행의 추정액에 불과하므로 1943년의 실질생산액이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역사적 조사』의 공업 생산액에는 『조선총독부통계연보』의 공장 생산액과 마찬가지로 정공업 생산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식료품공업이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점이다.⁴⁰⁾ 셋째, 업종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업종의 명목 생산액을 동일한 도매물가지수로 나누어 불변가격 생산액은 계산하였다는 점이다. 게다가 도매물가지수는 모든 산업의 중요품 가격을 가중 평균한 것으로서 공산품 뿐 아니라 1차산품의 가격변동이 크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공업 생산액의 디플레이터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⁴¹⁾

『역사적 조사』에 기술된 개별 품목의 생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본 추계처럼 1941년이 공업생산의 피크였던 것 같다. 식료품공업에서 가내생산의 비중이 큰 소주, 탁주 생산이 1941년을 피크로 하여 감소하였다, 면직물은 계속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면사와 생사 생산량 역시 1941년 이후 크게 감소하였다. 화학공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안의 생산량도 1941년이 피크이고 암모니아 가스 생산량은 계속 감소하였으며, 魚粕과 정어리기를 생산량은 1942년에 급감하였다. 이처럼 공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중요 품목은 1941년을 피크로 하여 1942년에 감소로 돌아선 경우가 많았다. 증산을 보인 것은 오직 금속공업뿐이며 화학공업에서는 정어리 회유에 이변이 생겨 수확이 격감하고 유지공업이 부진하였다. 기계기구공업도 자재난과 금광산 정리로 인해 정체하고 있었다.

40) 정곡은 곡물의 단순가공에 불과하므로 보통 정곡 활동만을 공산액에 포함한다. 원료비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곡의 생산액을 그대로 포함시키면 식료품공업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왜곡이 생긴다. 『역사적 조사』에 의하면 식료품공업의 비중은 1941년에 26%, 1942년에 22%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41) 앞에서 언급한 자료 [4]에도 1940~43년의 공업 생산액 통계가 있으나 그중 1941, 1943년은 추정액이어서 검토를 생략한다.

〈그림 1〉 1936~44년의 공업 생산지수 추이(1940년=100)



자료: 堀和生(1995); 본 추계의 DB.

해방 후 한국은행은 주요 물자 생산량에 의거하여 1936년 가격으로 환산하여 광공업 생산액을 집계한 적이 있다(한국은행조사부 1953). 이것에 의하면 1936년 대비 남한의 공업생산은 1949년에도 40%에 달하지 못하였으며 광공업 전체로 겨우 40%를 넘어선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조사는 극히 부정확한 것이지만 해방 후의 광공업 생산의 추세 정도를 어느 정도 확인시켜준다고 생각한다. 이후에 기획처경제기획국에서 작성한 1948~51년의 공업생산 추계도 있지만,⁴²⁾ 공식적으로는 한국은행이 추계한 1948~52년 공업 생산액이 최초로 생각된다.⁴³⁾ 다음 <표 5>의 『韓國의 國民所得 1953-1963』에 추계 결과인 총액만이 제시되어 있다. 이상 한국은행의 두 추계를 ‘간이계열’이라 부르기로 하자. 이 간이계열에 따르면 공업생산이 1949년까지는 증가했다가 전쟁으로 인해 1951년까지 감소한 이후 다시 회복하는 추세였다.

해방 이후 국민소득 추계는 1950년대 후반 한국은행에 의해 비로소 체계적으로 실시되었다. 한국은행이 1953년부터 1958년까지 6개년의 국민소득을 추계한 과정과 결과는 <표 1>의 [25]에 실려 있다. 이후 계열은 계속해서 연장되었으며, 자료의 보완, 기준연도의 변경, SNA의 개정 등으로 인해 기존의 추계치도 수정되었다. 이후 『국민소득계정 1984』에서 UN의 새로운 국민계정체계(즉 1968 SNA)에 따라 한국의 국민계정이 재추계될 때 1970년 이후의 계열만 새로운 체계를 따랐으며,

42) 한국은행조사부(1955), pp. 65, 89, 138에 그 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43) 이는 한국은행조사부(1961)의 서술에 의거한 것이다.

1970년 이전의 계열은 더 이상 수정되지 않은 채 남겨졌다. 따라서 1953-70년의 국민소득 추계치는 기준연도에 따라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5개의 계열로 나뉜다.

<표 5> 1953-70년 국민소득 추계 계열

계열	통계서	기준연도
1	『韓國의 國民所得 4286-4291』; 『경제통계연보』 (1960)	1955년
1'	『경제통계연보』 (1961-64)	
2	『韓國의 國民所得 1953-1963』; 『경제통계연보』 (1965)	1960년
2'	『경제통계연보』 (1966)	
3	『韓國의 國民所得計定』 (1967); 『國民所得年報 1968 (1953-1967)』; 『國民所得年報 1969』; 『國民所得年報 1971』; 『경제통계연보』 (1967-72)	1965년
4	『國民所得年報 1972』; 『韓國의 國民所得 1973』; 『韓國의 國民所得 1975』; 『경제통계연보』 (1973-78)	1970년
5	『韓國의 國民所得 1978』; 『韓國의 國民所得 1982』; 『國民所得計定 1984』; 『경제통계연보』 (1979-)	197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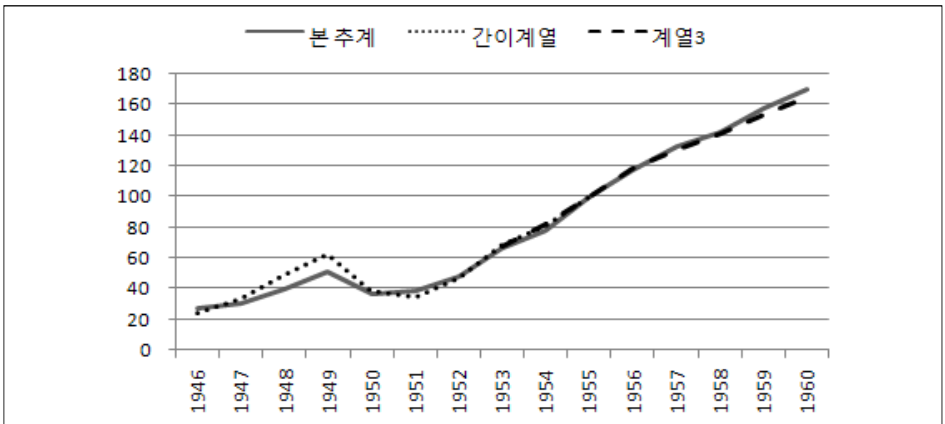
기준연도는 광공업 센서스가 실시된 연도이기도 했기 때문에 기준연도의 변경이 단순히 불변가격 수치의 수정에 그치지 않고 센서스 등의 자료에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한 경상가격 수치의 수정으로도 이어졌다. 예컨대 공업의 각 계열별 수치를 비교해본 결과, 계열1에서 2로 바뀔 때와 계열2에서 3으로 바뀔 때 1953년 이후 모든 연도에 대해 경상가격 수치들이 전면적으로 수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기의 국민소득 추계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계열을 보완해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비해 계열3에서 4로 갈 때는 1963년 이후의 값만 수정되었다.⁴⁴⁾ 따라서 1960년까지의 생산통계는 계열3에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2>는 해방 후 1946~60년에 대한 본 추계 결과와 한국은행의 추계를 비교한 것이다. 한국은행의 간이계열에서 1946~47년은 생산액 추계 통계이므로 그것을 1949년의 총생산액 대비 부가가치 비율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액으로 환산하여 연장하였다. 간이계열은 1946~55년이며,⁴⁵⁾ 계열3은 1953~60년의 수치이다. 그림

44) 계열4에서 5로 갈 때는 광업의 경우 1961년 이후의 값만 수정되었지만, 공업에서는 계열5가 새로운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작성되어 공업 자체의 범주와 그 안의 중분류 체계가 달라짐에 따라 거의 모든 연도의 값이 바뀌었다.

에서 보듯이, 1948~49년에서 본 추계와 한국은행 간이계열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그 외의 연도에서는 대체로 본 추계와 한국은행 추계는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1953~60년의 본 추계(1955년 가격기준)와 한국은행 계열3(1965년 가격기준)을 비교하면, 본 추계의 증가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거의 차이가 없다. 물론 이것은 총액의 추이에서 그러하다는 것이며, 중분류별로는 반드시 총액에서의 결과와 동일하지는 않다.⁴⁶⁾

〈그림 2〉 한국은행 추계와 본 추계의 공업 불변가격 부가가치 추이(1955년=100)



주: 1) 1955년을 100으로 하여 지수화하였다.

2) 본 추계와 간이계열은 1955년 가격기준이고, 계열3은 1965년 가격 기준이다.

자료: 한국은행조사부(1953); 〈표 5〉의 계열2, 계열3의 통계서; 본 추계의 DB.

공업에서와는 달리, 광업에서는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본 추계와 계열3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본 추계의 증가율이 1965년 가격기준인 계열3보다 크다는 점이 뚜렷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불변가격 생산액은 생산을 과대평가하는 편향을 가지며 기준연도로부터 먼 연도일수록 더욱 그렇다.⁴⁷⁾ 따라서 긴 기간의 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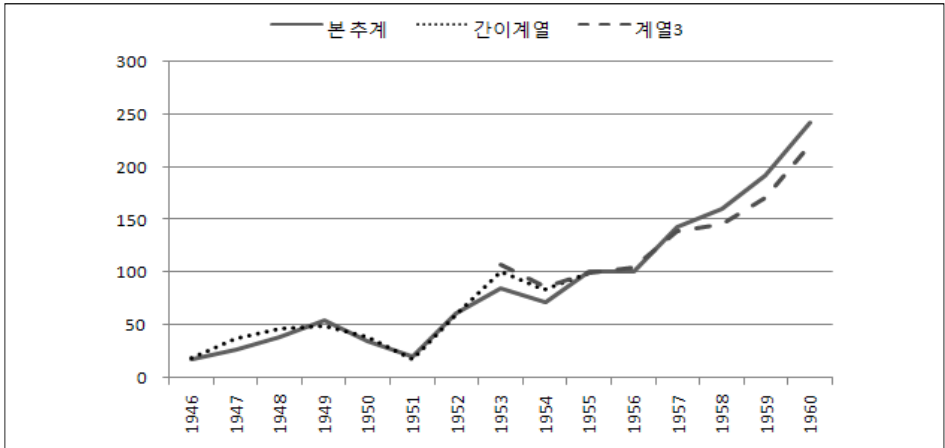
45) 〈표 5〉의 『韓國의 國民所得 1953-1963』은 1948-52년의 추계의 간단한 결과표 외에 1953-62년에 대해서도 ‘구 추계’라는 이름으로 결과표를 수록하였다. 양자 모두 1955년 기준 불변가격 금액이어서 후자의 1955년까지를 간이계열에 접속하였다.

46) 중분류별로 본 추계와 계열3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은 1953-60년이다. 예컨대 음식료품 공업의 경우, 본 추계는 계열3보다 전반에는 생산증가율이 더 높았으나 후반에는 더 낮았다. 또한 섬유·피혁·장신품 공업에서는 본 추계가 계열3보다 생산증가율이 낮았다.

47) 이는 명목생산액을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로 나누는 생산지수의 작성방식과 관련 있다. 1965

계열을 만들 때에는 복수의 기준연도를 두고 각 시계열을 연결하여 장기 계열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하나의 기준연도로 장기 계열을 만드는 것과 기준연도가 다른 여러 계열을 연결하는 것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다음의 과제로 한다.

〈그림 3〉 한국은행 추계와 본 추계의 광업 불변가격 부가가치 추이(1955년=100)



자료: 〈그림 2〉와 동일.

2. 광공업 생산의 추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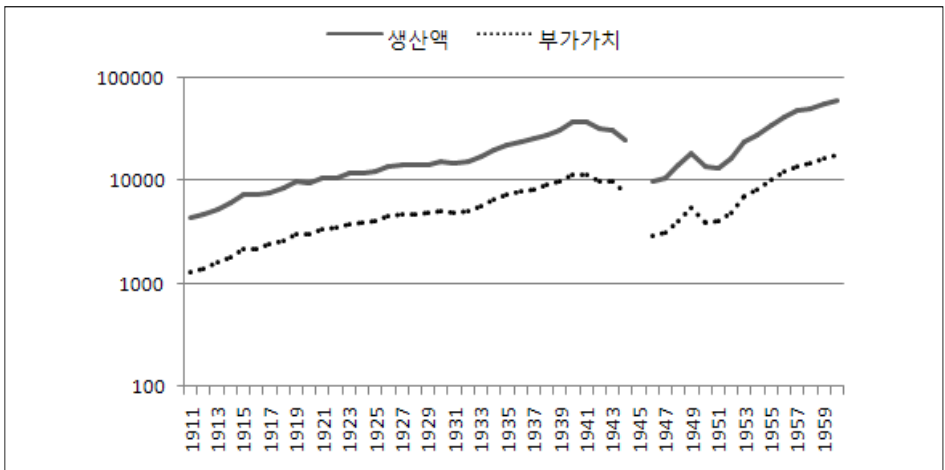
〈그림 4〉는 1955년 가격기준으로 조정한 1911-60년의 공업생산액 장기 추이를 보여 준다. 물론 식민지기의 계열은 남한만을 분리한 것이다. 남한은 식민지 전반기에는 전국 공업 생산의 65%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1930년대에 급격하게 하락하여 1940년에 45%에 이르게 되고 그런 추세가 지속되었다면 1944년에 이르러서는 36.5%로 하락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공업 생산의 장기 추이를 보면 1920년대에 성장이 다소 둔화되고 1930년대에 빠르게 성장하다가 태평양 전쟁기에 돌입하면서 위축되었다. 해방 직후 일본과의 관계 단절, 남북 분단, 경영자 및 기술자의 부족으로 공업 생산은 급감하였다가 1949년까지 빠르게 회복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다시 급감하였다가 1952

년 가격기준의 계열3의 기율기가 1955년 가격기준의 본 추계보다 완만한 것은 예상한 바와 일치한다.

년부터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하였으며, 1950년대 말에는 원조의 감소, 재정긴축 등의 원인으로 공업의 성장이 둔화되었다. 1960년대 고도성장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1950년대에도 전후 복구과정에서 공업생산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 공업 생산액 및 부가가치 장기 추이(1955년 기준 불변가격, 백만 원)



주: 환에서 원으로 화폐개혁은 1962년이지만, 이해하기 쉽게 금액의 화폐단위를 현재의 원으로 환산하였음.

자료: 〈부표 1〉.

본 추계에 의하면, 생산액 기준으로 1953년에 1935년의 수준을 회복하며 1956년에는 해방 전의 최고인 1941년의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 이는 해방 전과 후의 연결을 처음으로 시도한 溝口敏行(1975)의 결과와 상당히 다르다. 그는 남한의 광공업 생산이 1958년경에 1935년 수준을 회복하고 1963년에 이르러 1940년 수준을 회복하였다고 한다. 본 추계와 溝口의 추계 간에 왜 이처럼 큰 차이가 생긴 것인가.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환산율의 차이이다. 溝口는 1963년의 광공업센서스로부터 1935년의 품목에 대응하는 품목을 선택하고 양 연도의 가격배율을 1935년의 생산비중으로 가중 평균함으로써, 해방 전과 후의 생산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환산율을 작성하였다. 즉 그의 환산율은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인 셈이다. 반면 본 추계의 환산율은 피셔방식이다. 이론적으로 전자는 물가상승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溝口가 계산한 해방 후의 실질생산액이 과소평가되었을 수 있

다. 그러나 해방 전과 후의 수준 비교에서 본 추계와 溝口의 차이는 환산율의 차이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다. 1935년을 1955년 기준으로 바꾸기 위한 본 추계의 환산율은 57,589이며, 溝口가 작성한 1935년과 1963년 사이의 환산율은 127,618이다.⁴⁸⁾ 전자의 1955년이 후자의 1963년에 일치하도록 본 추계의 환산율에 1955~63년의 물가상승률 230%⁴⁹⁾을 곱하면 환산율은 132,455가 되므로 본 추계와 溝口는 환산율에서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물론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⁵⁰⁾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생산액을 집계하는 방식의 차이이다. 溝口는 1963년의 업종별 명목액을 환산율로 나눈 업종별 실질액을 합산하여 총실질액을 구하였는데, 그것은 1935년 생산액의 1.75배였다. 업종별 명목액 자체에 검토의 여지가 있지만 그것은 차치하기로 한다.⁵¹⁾ 溝口는 1935년과 1963년 사이의 업종별 실질생산액 배율을 1935년 업종별 생산액으로 가중 합산하여 1963년도 총 실질생산액이 1935년의 1.75배라는 결론에 도달했는데, 만일 업종별 실질생산액 배율을 1963년의 업종별 생산액으로 가중 합산하면 총 실질생산액의 배율은 11.54배가 된다. 따라서 사실에 가깝기는 1.75와 11.54를 기하평균한 4.5배이고, 그것은 본 추계에서 1963년의 실질생산액이 1935년의 3.8배인 것과 비슷하다. 溝口처럼 두 연도의 조정률을 1935년과 1963년 중 어느 한 쪽의 가중치만을 사용하여 작성한다면 그 결과는 실태와 크게 어긋날 수 있다.

이번에는 본 추계에 기초하여 공업 업종별 생산 추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생산액 기준으로 남한의 생산비중은 식민지 공업화의 시기인 1930년대에 전반적으로 떨어졌는데, 특히 화학·석탄·고무제품(35), 토석·유리제품(36), 제1차 금속(37)에서 그러하였다. 반면 음식료품·연초(31)와 섬유·의복·가죽·신발류(32)에서 남한의 생산비중은 1920년대까지 70% 내외이다가 1930년대 들어 오히려 80%로 상승하였다. 경공업이 남쪽, 중화학공업이 북쪽에 주로 위치하고 있었던 것을 이 비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930년대 중엽 이후에 남한 내 공업생산 구성의 추이를 보면 조금 다른 이미지를 갖게 된다.

48) 이는 溝口敏行(1975)의 제3.10표에서 1963년의 명목액을 실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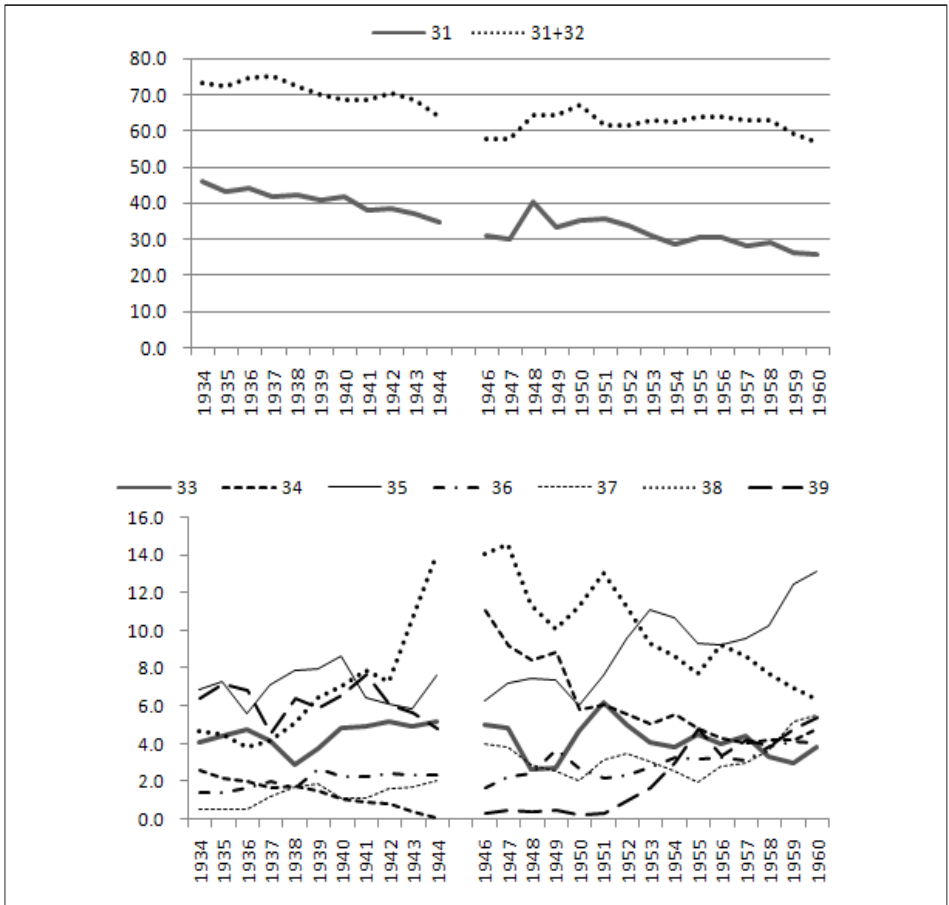
49) 이 수치는 『한국통계연감』으로부터 작성한 것이다.

50) 본 추계에서 라스파이레스 방식의 환산율을 계산한 결과는 溝口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51) 溝口가 제시한 1963년 명목액은 한국은행 국민소득 추계자료에 제시된 것과 업종별 구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림 5〉에서 보듯이, 남한의 공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음식료품·연초 공업과 섬유·의복·가죽·신발류 공업으로, 이 둘의 비중은 전체의 70%를 상회하였으나 전자의 비중이 1930·40년대에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식민지기 말까지 10% 포인트 정도 하락하였다. 인쇄출판·紙제품(34)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그것을 메운 것은 금속제품·기계류(38) 공업이었다. 이러한 추이로 보 건대 식민지 후반기에 남한에서도 산업구성이 어느 정도 고도화되어 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전시경제체제는 조선 내 자급체제의 강화를 요구하였고 이에 일본에 의존하던 금속제품·기계류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림 5〉 공업 업종별 생산비중의 추이(%)



주: 분류번호에 대한 설명은 각주 28 참조.

자료: <http://www.naksung.re.kr/papers/2010-4.pdf>

해방 직후에 음식료품·연초 공업과 섬유·의복·가죽·신발류 공업의 생산비중은 6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전체적으로 공업생산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음식료품·연초공업 생산은 해방 전에 비해 거의 1/3~1/4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간장·된장 생산은 일본인의 철수에 의한 수요 감소로 인해 위축되었으며 제분은 근대적 공장 3곳 중 1곳에 화재가 있었으며 가내공업적 소규모 공장이 생겨났어도 생산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또한 식량 사정 악화로 인해 곡물을 원료로 하는 양조가 금지되었다. 음식료품·연초 공업은 이후에도 계속 그 비중이 하락하고 있었던 반면, 섬유·피혁·신발류 공업의 생산비중은 해방 전에 비해 크게 낮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방 후에는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두 공업의 생산비중은 1948·49년에 약 70% 가까운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다시 하락하여 60% 초반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1950년대 말부터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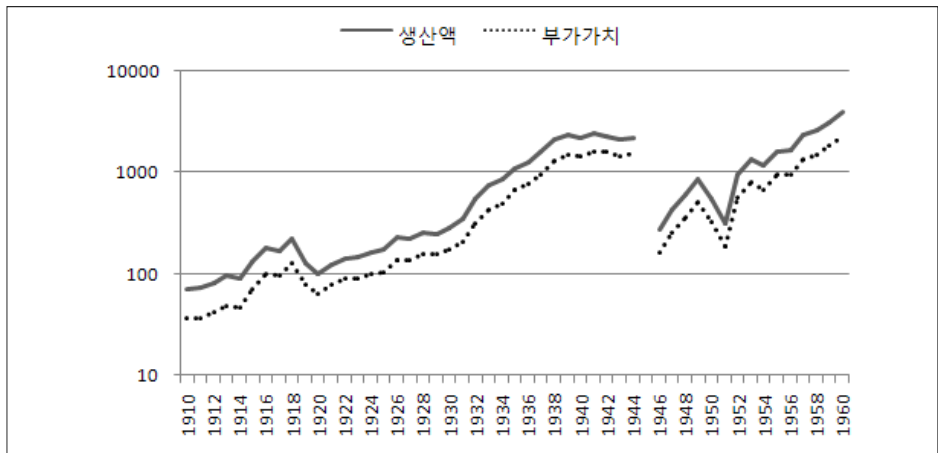
이들 두 공업에는 원조물자에 기초한 소위 ‘3백산업’(면직물, 제당, 제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1952~57년에 섬유·의복·가죽·신발류 공업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면사·면포 생산 뿐 아니라 3백산업과 무관한 메리야스제품 등 식민지기에 한국인들이 다수 진출한 공업의 생산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음식료품·연초 공업은 수요의 성격상 생산 증가에 한계가 있는 연초나 도정업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비록 제분업과 제당업의 생산이 증가하더라도 생산비중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실태로 보아 그동안 3백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원조경제를 이룩해온 데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인쇄출판·紙제품 공업은 해방 후에도 생산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해방 전에 비중이 높아지고 있던 금속제품·기계류 공업의 생산비중도 감소하고 있었다. 반면 화학·석탄·고무제품 공업의 비중은 해방 전과 마찬가지로 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이대근(2002, p. 437)은 “1950년대의 공업구조는 섬유·식품공업이 전체공업을 주도하면서 유리·시멘트 공업과 철강공업 등의 생산재공업도 미래의 발전을 위한 힘찬 나래를 펴고 있었다. 이러한 추세는 본격적인 공업화가 전개되는 1960년대 전반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고 평가하였지만, 1950년대에 토석·유리제품과 제1차 금속 공업의 생산비중은 아직 미미한 증가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번에는 광업 생산에 대해 살펴보자. 해방 전에 광업에서 남한의 생산비중은 1920년대까지 10%대에 머물렀으나 1930년대에 금광개발이 활발해지면서 1930년

대 중엽에 30%로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다가 1930년대 말부터 금의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금광업에 치우친 남한의 생산비중도 하락하였다. 그럼에도 1944년에 남한의 생산비중은 24%로 그다지 낮지 않았는데, 이는 강원도의 탄광개발과 중석광의 생산 증가 때문이었다.⁵²⁾ 〈그림 6〉에서 보듯이 남한의 광업 생산은 1920년대보다 1930년대에 더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1940년대에는 금광산의 정리에도 불구하고 다른 광물자원의 개발로 인해 생산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해방 직후 생산이 급락하였으나 1949년까지 빠르게 회복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다시 급감하였으며 1952년부터 회복하기 시작하여 1953년에 1935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해방 전 최고 수준을 회복하는 것은 1959년이였다. 이는 역시 해방 전의 금광개발 붐에 상응하는 개발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림 6〉 광업 생산액 및 부가가치 장기 추이(1955년 기준 불변가격, 백만원)



주: 〈그림 4〉와 동일.

자료: 〈부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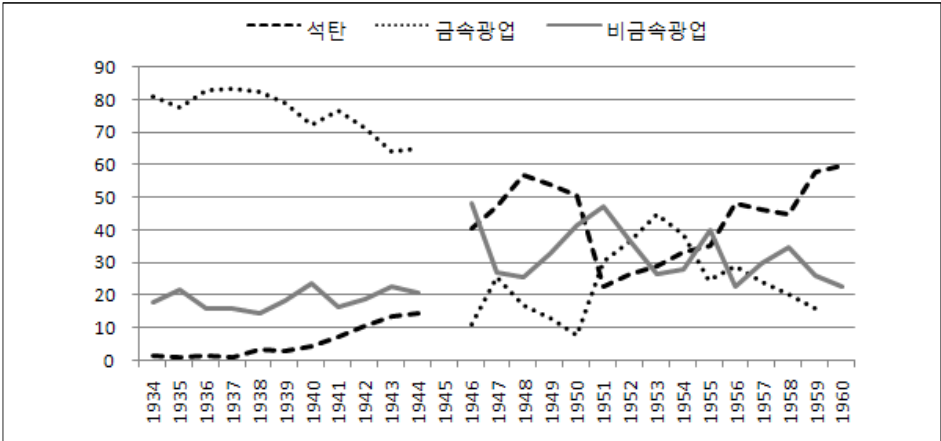
〈그림 7〉은 광업 업종별 구성의 추이를 보여준다. 금속광업에는 금속광물 뿐 아니라 광산의 제련품도 포함되어 있으며, 비금속광업에는 비금속광물 뿐 아니라 염·토사석도 포함된다. 해방 전 남한의 광업 구성은 비교적 단순하였다. 남한에는 철광산이나 동광산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속광물은 대부분 金銀銅鉛

52) 중석광은 1943·44년 광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가까이 되고 남한이 그중 54%, 66%를 차지하였다(〈표 1〉의 [6], p. 125).

광물이며, 광산의 제련품 역시 대부분 금·은이었다.

금광개발 덕분에 1930년대 중엽에 금속광업은 남한 광업 생산의 80%를 차지하였다. 1930년대에 금속광업의 생산비중은 일정하였지만, 금은 광석이 대부분 독립 제련소로 보내지면서 광산에서 제련되는 비철금속의 생산비중이 감소하고 독립제련소에 공급되는 원료광석의 생산비중이 증가하였다. 제2차 대전이 발발한 1930년대 말부터 대외무역의 결제수단으로서 금에 대한 요구는 약화되고, 특히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에 타종 광물의 요구가 커졌기 때문에, 광산설비의 전용을 위해 1943년에 금산정비령이 단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속광업의 생산비중이 60% 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중석광의 생산 때문이었다. 염·토사석이 포함된 비금속광업의 생산비중은 식민지기 말까지 20% 전후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식민지기에 석탄은 대부분 북한에서 생산되었고 남한에서 강원도 일대의 석탄이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말부터였다. 개발의 역사가 짧았던 탓에 식민지기 말에 석탄의 생산비중은 10% 정도에 그쳤다.

〈그림 7〉 광업 업종별 생산비중의 추이(%)



자료: 〈그림 5〉와 동일.

해방 후에 광업 업종별 구성이 크게 변하였다. 금광산은 폐쇄된 지 오래되어 재개가 거의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금속광업의 비중은 해방 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그나마 1950년대 전반에 금속광업의 비중이 증가하였던 것은 대표적 수출품 중 하나였던 중석광 때문이었다. 금속광업의 생산비중은 1953년에 40%를 넘어섰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식민지기에 미미한 증가를 보인 비금속광업의 생산비중은 해방 후 서서히 감소하였다. 비금속광업의 생산비중 감소는 염·토사석의 생산증가가 상대적으로 완만했기 때문이었다. 해방 후 광업 생산이 식민지기와 비슷한 속도로 빠르게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석탄광업의 생산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 해방 후 빠르게 회복되던 석탄광업의 생산비중은 한국전쟁기에 20%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빠르게 증가하면서 1950년대 말에 60% 수준에 이르렀다.

V. 맺음말

이상에서 본 논문은 소위 통계의 공백기라고 하는 1940·50년대의 자료를 수집하여 광공업 생산통계 시계열을 추계하고 그것을 전후의 시계열과 연결함으로써 장기 통계를 작성하고 그에 의거하여 광공업부문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장기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였다. 첫째, 각종의 자료로부터 가장 신뢰할 만한 통계로 공백기의 생산량 시계열을 작성하고 그것에 특정 연도의 품목별 단가를 곱하여 불변가격 시계열을 작성하였다. 둘째, 1945년 통계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해방 전과 해방 후의 계열을 따로 작성하고 그 두 계열의 수준을 일치시키는 환산율을 계산하여 적용하였다. 셋째, 이렇게 작성한 시계열을 이전과 이후, 즉 1911~40년 계열과 한국은행 국민소득 추계의 광공업 생산 계열과 연결하였다. 이 때 해방 전의 생산통계에 대해서는 남북한을 분리하였으며, 또한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부가가치 장기 계열도 작성하였다.

광공업 생산은 1940년대 전반 태평양전쟁기에 크게 하락하였으며, 해방 직후 급락하였다가 빠르게 회복되지만 다시 한국전쟁으로 다시 생산의 감소를 면치 못하였다. 공업 생산에서 음식료품·연초 공업과 섬유·의복·가죽·신발류 공업의 비중이 전체의 7할을 차지하다가 1940년 이후 차츰 하락하여 해방 후에는 6할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후자의 비중이 점차 커졌다. 광업에서는 식민지기에 금광개발과 관련하여 금속광물의 비중이 8할 정도였으나 해방 후에는 석탄광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져 5할대가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제86회제국의회설명자료(1944년 12월)에서 ‘조선에서 物動 물자의 몇 할을 자급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물동계획 자원 150개 품목 중 자급할 수 있는 것은 40개 품목이라고 하였다. 일본 군부는 전시경제로의 전환이 1930년대

공황으로부터 탈출하는 수단으로 확신하였다. 1930년대 후반에 생산력확충과 군수확장으로 일본 경제는 팽창하였고 식민지인 조선 경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전격전을 노리고 시작된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물자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특히 해상수송이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일본과 해협으로 분리된 조선의 재생산구조는 타격을 입어 공업 생산은 마지막 3년 동안에 급감하면서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일본 경제는 1944년의 피크에 도달하기까지 생산이 유지되었지만, 조선이나 대만 경제는 1940년대에 하락의 추세가 뚜렷하였다.

한편 해방 후에는 식민지기에 형성된 일본과의 재생산구조가 완전히 단절되고 남북이 분단되고 특히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회복의 기미를 보이던 생산이 다시 하락하였다. 그 결과 공업생산은 생산액 기준으로 1953년에야 1935년의 수준을 회복하며, 1956년에 이르러 해방 전의 최고인 1941년의 수준을 넘어섰다. 광업생산은 1953년에 1935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해방 전 최고 수준을 회복하는 것은 1959년이었다. 일본 및 대만과 비교하면 한국전쟁이 회복을 2년 정도 지연시켰음을 알 수 있다. 즉 공업생산 부가가치 기준으로 일본과 대만은 1951년이면 1935년 수준을 회복하지만 한국은 1954년에야 회복하며, 해방 전의 최고수준을 회복하는 것은 일본과 대만이 각각 1955년과 1953년이지만 한국은 1956년이다.⁵³⁾

1940·50년대는 前後의 시기에 비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첫째는 통제경제기였다는 점이다. 1940년대 전반은 전시 통제경제가 심화되었던 시기이며 해방 후에도 일부 품목의 가격통제가 있었고 원조물자에 대한 배급 통제가 있었다. 둘째는 무역의 위축기였다는 점이다. 개항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온 무역은 1940·50년대에 급격한 위축을 경험하며, 1960년대에 다시 확대되기 전까지는 좀처럼 증가하지 않았다(박기주·김낙년 2009). 통제의 강화와 개방의 후퇴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이론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이것은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본 논문은 통계의 공백기의 시계열을 작성하기 위해 1960년까지 품목별 생산통계를 추계하였다. 1970년 이후에 대해서는 품목별 생산통계의 이용이 가능하지만, 1953년부터 1970년까지의 한국은행 추계에는 업종별 생산통계만 있을 뿐 품목별 생산통계가 없어, 광공업의 구체적인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품목별 생산통계를

53) 대만과 일본의 수치는 각각 溝口敏行(2009)과 일본 총무성통계국(<http://www.stat.go.jp/data/chouki/08.htm>)에서 계산한 것이다.

1970년까지 연장하여 생산통계 시계열을 작성하고 그것을 한국은행의 계열과 비교하는 것 또한 추후에 보완되어야 할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한계를 지적하자면, 수집 가능한 자료로부터 통계공백기 전후 시계열과 자료상의 연속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복수의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 자료를 비교하면서 가장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추계하여 공백기의 통계를 작성하였지만, 자료 간의 수치의 상이함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아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고 수치 해석 및 처리에 더 나은 방법을 개발되면 공백기의 광공업 생산통계는 향후에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표 1>과 <표 5>에 제시한 자료에 대해서는 생략함.

1. 김낙년 편,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Translated in English) Kim, Nak Nyeon, ed., *Economic Growth in Korea 1910-1945*, Seoul: Seoul Nat'l Univ. Press, 2006.
2. ———, “일제시기 우리나라 GDP의 도별 분할,” 『경제사학』, 45, 2008, pp.3-43.
(Translated in English) Kim, Nak Nyeon, “Estimating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of Korea during the Colonial Period,” *Review of Economic History*, 45, 2008, pp.3-43.
3. ———, “한국의 국민계정, 1911-2007,” 『경제분석』, 15-2, 2009, pp.55-95.
(Translated in English) Kim, Nak Nyeon, “National Accounts of Korea, 1911-2007: Term Series of Principal Indicators,” *Economic Analysis*, 15-2, 2009, pp.55-95.
4. ———·박기주, “해방 전후(1936-56년) 서울의 물가와 임금,” 『경제사학』, 42, 2007, pp.71-105.
(Translated in English) Kim, Nak Nyeon and Ki-Joo Park, “Consumer Price Index and Real Wage in Seoul 1936-1956,” *Review of Economic History*, 42, 2007, pp.71-105.
5. 김대환, “1950년대 한국경제의 연구,” 『1950년대의 인식』, 한길사, 1981.
(Translated in English) Kim, Dae Hwan, “Korean Economy in the 1950's,” *Understanding*

- the 1950's*, Seoul: Hangilsa, 1981.
6. 김양화, “1945-1959년 시기 한국의 경제성장 전략,” 『동향과 전망』, 28, 1995, pp.38-63.
(Translated in English) Kim, Yang Hwa,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in Korea, 1945-1959,” *Trend and Prospect*, 28, 1995, pp.38-63.
7. _____, “1950년대 한국의 공업화과정,” 『潭史 김중현교수정년기념논문집: 공업화의 제유형 II -한국의 역사적 경험』, 경문사, 1996.
(Translated in English) Kim, Yang Hwa, “Industrialization Processes in the 1950's Korea,” *Patterns of Industrialization*, Vol. II, Seoul: Kyungmoonsa, 1996.
8. 김인호, 『태평양전쟁기 조선공업연구』, 신서원, 1998.
(Translated in English) Kim, In Ho,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in the Pacific War Period*, Seoul: Shinsowon, 1998.
9. 낙성대경제연구소, “한국의 역사통계-맬더스 세계로부터 근대적 경제성장으로,” 학술대회자료집, 2009.
(Translated in English) Naksungda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Historical Statistics of Korea: From Malthusian Economy to Modern Growth*, Conference Proceedings, 2009.
10. 박기주, “광업·제조업,” 김낙년 편,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Translated in English) Park, Ki-Joo, “Mining and Manufacturing Industry,” in Nak Nyeon Kim ed, *Economic Growth in Korea 1910-1945*, 2006.
11. _____, “한국무역의 태동기,” 『한국무역사』, 한국무역협회, 2006.
(Translated in English) Park, Ki-Joo, “Korean Trade after Liberation: The Period of Foreign Aid and Controlled Trade, 1945-1963,” in *History of Korean Trade*, Seoul: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2006.
12. _____·김낙년, “한국의 長期 貿易統計와 貿易指數(1877-1963),” 『經濟學研究』, 57-3, 2009, pp.131-170.
(Translated in English) Park, Ki-Joo and Nak Nyeon Kim, “Long-term Trade Statistics and Indices in Korea, 1877-1963,” *Kyong Je Hak Yon Gu*, 57-3, 2009, pp.131-170.
13. 이대근, 『해방후·1950년대의 한국경제: 공업화의 사적 배경 연구』, 삼성경제연구소, 2002.
(Translated in English) Lee, Dae Geun, *Korean Economy since the Liberation till the 1950's*, Seoul: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02.
14. 이상철, “수입대체공업화정책의 전개, 1953-1961,” 『한국경제성장사』, 서울대출판부, 2001.
(Translated in English) Lee, Sang Chul,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Policies, 1953-1961,” *Economic Growth in Korea: Preliminary Approach*,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1.
15. 이영훈 편, 『수령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 서울대출판부, 2004.
(Translated in English) Rhee, Young Hoon, *The Late Chosun Korea Revisited with Cliometric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4.
16. 한국은행조사부, 『韓國産業概況』, 1953.
(Translated in English) Research Department of Bank of Korea, *Korean Industries Overview*, Seoul: Bank of Korea, 1953.

17. _____, 『한국국민소득추계자료집』, 1955.
(Translated in English) Research Department of Bank of Korea, *The Estimation Sourcebook of National Income in Korea*, Seoul: Bank of Korea, 1955.
18. _____, “1948-1960년의 國民總生産 推移,” 『韓國銀行調査月報』, 15-12, 1961, pp. 16-31.
(Translated in English) Research Department of Bank of Korea, “Trend in Gross National Products, 1948-1960,” *Monthly Statistical Review*, 15-12, 1961, pp. 16-31.
19. 허수열, 『개발없는 개발』, 은행나무, 2005.
(Translated in English) Huh, Soo Yol, *Development without Development*, Seoul: Unhaengnamu, 2005.
20. 李鎭勉・權赫旭, “韓國の鉱業・製造業,” COE 韓國セミナー提出論文, 2006.
(Translated in English) Lee, Jin Myon and Hyeog Ug Kwon, “Mining and Manufacturing in Korea,” COE Korea Seminar, 2006.
21. 近藤 劔一 편, 『太平洋戦下の朝鮮』, 友邦協會, 1964.
(Translated in English) Kondō, Kenichi ed., *Chōsen during the Pacific War*, 1964.
22. 金昌男・文大字(2006), 『韓國 東アジア長期經濟統計別冊 1』, 勁草書房.
(Translated in English) Kim, Chang Nam and Dae Woo Moon, “Korea: East Asian Long-term Economic Statistics Supplement 1,” Tokyo: Keisoshobo.
23. 大藏省管理局 편,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歴史的調査』, 1947.
(Translated in English) Ohkurashou Kanrikyoku, *Historical Survey about Japanese Activities Abroad*, 1947.
24. 朝鮮總督府, 『昭和15年民營工場生産額集計』.
(Translated in English) Chōsensōtokufu, *Filing the Product Tables of the Private Factory in 1940*.
25. 原康宏, “臺灣・韓國における鑛工業長期生産系列の吟味,” Hitotsubashi University Research Unit, Discussion Paper Series No. 216, 2007.
(Translated in English) Hara, Yasuhiro, “Examination of Long-term Mining and Manufacturing Production Series in Taiwan and Korea.”
26. 原朗・山崎志郎 편, 『生産力擴充計劃資料』, 1-9, 現代史料出版, 1996.
(Translated in English) Hara, Akira and Yamazaki Shirō, *Documents of Product Capacity Increasing Plan*, 1-9, Gendaishiryoshuppan, 1996.
27. 溝口敏行, 『臺灣・朝鮮の經濟成長』, 岩波書店, 1975.
(Translated in English) Mizogichi, Toshiyuki, *Economic Growth of Taiwan and Korea*, Tokyo: Iwanamishoten, 1975.
28. _____, 『アジア長期經濟統計1 臺灣』, 東洋經濟新報社, 2008.
(Translated in English) Mizogichi, Toshiyuki, *Asian Long-term Economic Statistics 1 Taiwan*, Tokyo: Toyokeizaishimposha, 2008.
29. 堀和生, “植民地の獨立と工業の再編成一臺灣と韓國の事例一,” 中村哲 編, 『東アジア資本主義の形成』, 青木書店, 1994, pp. 189-227.

(Translated in English) Hori, Kazuo, "Liberation and Industrial Reorganization in Taiwan and Korea," in Satoru Nakamura ed., *The Establishment of East Asian Capitalism*, Tokyo: Aokishoten, 1994, pp. 189-227.

30. ———, 『朝鮮工業化の史的 분석』, 有斐閣, 1995.

(Translated in English) Hori, Kazuo, *Historical Analysis of Korean Industrialization*, Tokyo: Yuhikaku, 1995.

31. ———, "朝鮮・韓國と臺灣の工業化—經濟の高度化と國民經濟—," 植村泰夫 外編, 『東アジア經濟の軌跡』, 青木書店, 2001, pp. 173-200.

(Translated in English) Hori, Kazuo, "Industrialization in Korea and Taiwan," in Yasuo Uemura et al., *Historical features of East Asian economy*, Tokyo: Aokishoten, 2001, pp. 173-200.

32. Suh, Sang-Chul, *Growth and Structural Changes in the Korean Economy, 1910-1940*,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33. 日本總務省統計局 (<http://www.stat.go.jp/data/chouki/08.htm>)

34. 낙성대경제연구소 (<http://www.naksung.re.kr/papers/2010-4.pdf>)

〈부표 1〉 광공업 생산액(1955년 기준 불변가격, 백만 원)

연도	공업		광업		연도	공업		광업	
	생산액	부가가치	생산액	부가가치		생산액	부가가치	생산액	부가가치
1910			295	144					
1911	18,564	6,119	300	145	1936	103,874	36,733	5,150	2,989
1912	20,078	6,645	335	165	1937	111,040	38,950	6,561	3,763
1913	22,619	7,572	394	191	1938	121,503	42,420	8,859	5,139
1914	26,016	8,640	373	183	1939	133,735	46,555	9,702	5,793
1915	31,209	10,391	537	272	1940	158,368	54,131	8,983	5,590
1916	31,093	10,321	736	395	1941	158,966	54,335	9,932	6,224
1917	33,081	11,301	696	378	1942	135,784	46,412	9,443	6,189
1918	36,442	12,382	912	493	1943	134,998	46,143	8,650	5,720
1919	42,200	14,464	523	304	1944	106,294	36,332	9,113	6,055
1920	40,899	14,312	412	248	1945	-	-	-	-
1921	45,700	16,016	510	307	1946	41,923	13,505	1,128	639
1922	46,229	16,382	589	348	1947	45,382	14,855	1,769	997
1923	50,790	18,071	599	353	1948	60,272	19,404	2,533	1,438
1924	51,660	18,764	659	389	1949	78,096	25,299	3,577	2,022
1925	52,929	18,976	713	408	1950	58,093	18,242	2,266	1,264
1926	59,234	21,663	947	529	1951	57,297	18,813	1,309	735
1927	60,605	21,943	916	531	1952	70,815	23,378	3,963	2,255
1928	62,200	22,527	1,042	618	1953	101,318	32,753	5,477	3,162
1929	62,306	22,694	1,030	613	1954	117,250	38,018	4,818	2,652
1930	65,604	23,907	1,179	687	1955	149,508	48,777	6,712	3,717
1931	63,041	22,959	1,428	812	1956	180,254	57,544	6,847	3,908
1932	66,325	23,911	2,248	1,234	1957	201,785	63,954	9,301	5,183
1933	73,777	26,282	3,044	1,657	1958	217,387	68,982	9,906	5,443
1934	86,423	30,590	3,555	1,958	1959	237,431	74,961	11,681	6,369
1935	96,944	34,455	4,577	2,628	1960	258,980	80,593	14,951	8,223

주: 해방 전은 남한, 해방 후는 대한민국.

The Estimation and Analysis of Mining and Manufacturing Product Statistics in the 1940s and 50s

Ki-Joo Park* · Sang Yoon Ryu**

Abstract

There is the so-called 'blank period of statistics' from 1940/1941 when the government stopped publishing official statistics to 1953 which was the starting year of the first National Income estimation of the Bank of Korea (BOK). This paper assembled documents and data and estimated the mining and manufacturing product by items of that period and linked it with the previous and post series to result in long-term series. Mining product was up and down before liberation and stagnated during 1st half of 1940s while manufacturing product decreased after having peaked at 1941. The product of both mining and manufacturing was increasing to 1949 after great decrease on liberation. The product restarted increase after Korean war's interruption and the time when the product reached the supreme level of colonial period was 1956 in manufacturing and 1959 in mining. In manufacturing, the share of both food, beverage, and tobacco industry and fiber, clothing, leather, and shoes industry was 70% and decreased to 60% of manufacturing product and continued it after liberation. Being indebted by the development of gold mine, the share of metal mining was 80% of mining product in 1930s, while the share of coal mining increased finally to reach above 50% of mining product after liberation.

Key Words: mining and manufacturing product, composition in industries, deflator, liberation

Received: July 9, 2010. Revised: Aug. 1, 2010. Accepted: Sep. 3, 2010.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Sungshin Women's University, 249-1, Dongseon-dong 3-ga, Seongbuk-gu, Seoul 136-742, Korea, Phone: +82-2-920-7742, e-mail: kjpark@sungshin.ac.kr

** Visiting Scholar, Graduate School of Economics, The University of Tokyo, 7-3-1, Hongo, Bunkyo-ku, Tokyo, Japan, Phone: +81-3-5841-0319, e-mail: syryu@e.u-tokyo.ac.jp